

구태정치인 물러가고 '새정치' 펼쳐야

21세기는 이미 시작됐다. 새로운 천년이 마침내 열렸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치인이 간절히 필요할 때다. 과거 틀에 박힌 정치행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이제 뉴 밀레니엄에 걸맞는 뉴페이스를 대망하고 있다.

<편집자주>

국민불신 씻기 급선무

이처럼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음에도 새 시대정신의 실체는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현실의 표면에 나타나는 새로운 조짐에 대하여 단편적인 상식을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짐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새 날이 와야 한다. 구시대적인 인물의 정치권 장기체류가 아닌 신선한 청년조직이나 생각이

내 민주주의 「구정치문화 청산」 「정치개혁」 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새천년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중순 부정부패방지 민연합회가 전국 20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관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는 「국회의원」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인을 보는

서 자주 본다는 것 등이 텔레비전과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다. 극단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텔레비전과 같은 국회의원은 아예 뽑지말자는 낙선운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또 언론재갈물리기를 시도하다 백지화하는 년센스를 빚기도 했다. 의원세비 인상, 입법보좌관 증원 등 제법 그릇 쟁기에는 오랜만에 여야가 의견일치해 눈총을 샀다. 의원수 감축 논의는 약속이나 한 듯 기어들어가 집단기주의를 드러냈다. 여정의원에게 육살을 퍼붓는 등 저질시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기주의 저질발언 추방

이와함께 보스와 지역분할, 그리고 세력균형이 서로를 지탱하며 이상적 정맥을 해온 것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맥락인데 이 삼각구조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이번 총선의 대결구도는 「세계제로」 상태다. 「공동여당 합당」 등 정계개혁의 불씨가 살아있는데 선거구제 결정에서 같은 당에서 조차 여러 목소리가 제기돼 큰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총선은 특히 김대중대통령 정부의 집권 후반기 안정 여부와 함께 새 천년을 맞아 대구경북권 정치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점과 21세기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올해의 모든 정치행위는 총선으로 연결된다. 그야말로 정권쟁탈의 일대 격전장이 된다. 기성 정치의 틀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차기 정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새 정치를 말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정치권이 무엇을 이뤘는지 국민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정치인에게는 아직 고쳐지 않은 고질병이 많다. 정치권을 묘사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극한대처」이다. 우리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



모적인 정쟁으로 점철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정치관행 탓이다. 협상에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상황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기고 지는데 필사적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권자의식으로는 새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우리 정치를 새롭게 가꿀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천년에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새정치가 필요하고 정치판 불신을 일소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제자리에 정체돼 있다.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금도 구태에 젖은 우리 정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냉엄하게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지연 학연 혈연과 건망증을 버리고 선거혁명을 이루자.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른 인물을 뽑아 선거혁명을 이뤄야 할 때다. [이한웅기자]

유권자 깨어 있어야

국민들의 정치의식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투표패의 이중성이다. 포항지역 모 정당 지구당의 한관계자는 「이미 선거는 시작된 기본이다.

■전문가 특별기고

올해 봄에 예정된 총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중앙정가의 움직임이 부상해지고 지방에서도 출마예정자의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간의 선거법협상이 타격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와 진을 치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각종 지역행사에 고개를 내미는 빈도가 한층 잦아지고 있다.



김영중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장

새천년이 열리면서 이른바 정치시즌이 다가왔다. 총선은 4년마다 한번씩 치러지지만 이번 총선은 큰 의미가 있다. 21세기 첫번째 민주주의 축제이며 새

새시대 걸맞는 정치인 대망론 문제 해결능력 갖춘 선량 뽑자

천년의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량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천년의 출발점에서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의 한축을 담당할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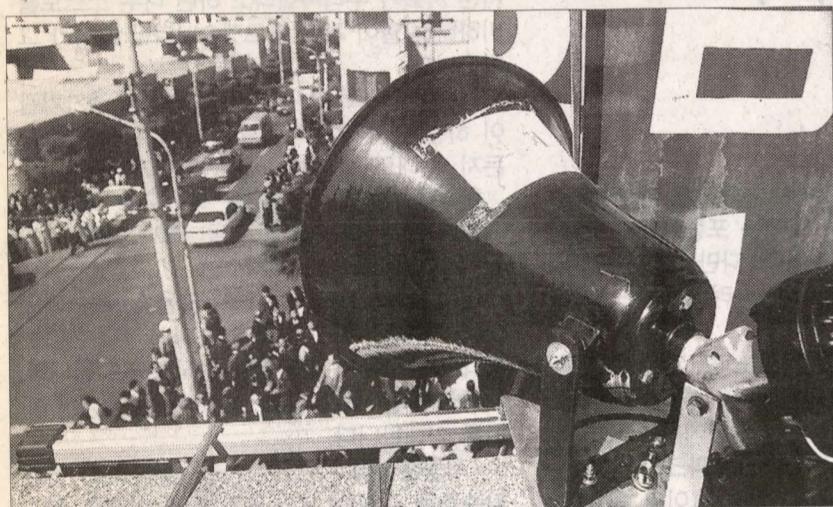
한마디로 말해 새시대에 걸맞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과 분출하는 국민의 욕구해결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참신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잘못된 제도의 수정을 과감하게 제안할 능력이 있고 예산의 심의나 결산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용도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관료의 권력남용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인 정보화와 지식사회로 특장지워지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국회의원상이다.

즉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깨끗하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며 구태의연한 정치인,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서 거드럼이나 피우며 자기 몫을 챙기는 이기적이고 썩어빠진 정치인이 아니어야 한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표

일정	행정부 추진 사항
3.22(수) D-2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26(일) D-18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접수 및 작성
3.27(월) D-17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3.28(화) D-16	선거운동기간 개시
3.29(수) D-15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후보자 등록 마감일
4.1(토) D-12	선거벽보, 선거공보, 부재자용 책자형 소용인쇄물 제출
4.2(일) D-11	사전벽보 첨부
4.6(목) D-7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안내문 발송
4.8(토) D-5	부재자투표(10:00~16:00)
4.12(수) D-1	투·개표소 설치, 투표용지·함 송부
4.13(목) D	선거일(06:00~18:00)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일로도로 점철된 정치판에도 서서히 새바람이 불고 있다.

개강 2000년 1월 3일

김현상의 회계실무 강좌

회계실무 연수생 모집

■ 교육의 목적 및 특징
각 기업체의 경리 및 회계실무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회계와 세무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숙지시켜 실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회계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결산업무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로 저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함

■ 교육의 대상
각 기업체의 경리, 회계, 세무, 관리, 기획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리자 및 취업예정자(전공불문)

■ 교육과정 및 일정

월 화	수 목	금
기업회계실무입문	전산회계실무해설	기업회계실무해설

과목별 2개월(총 6개월) 매일 오후7~9시

■ 교육비 및 특전
① 6개월 과정 650,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② 한번등록으로 실무능력이 숙지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강할 수 있음
③ 전산회계자료를 심사하여 "회계관리사" 수료증 발급
④ 취업예정자에게는 각 기업체의 취업추천
⑤ 회계관리프로그램 및 녹음테이프 무료제공

■ 교육내용

● 기업회계실무 ●

① 기업회계실무입문
기업에서의 회계처리목적과 회계처리대상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처리결과로서의 결산서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입문과정

② 전산회계실무해설
기업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1년분의 자료를 연수생들이 직접 회계처리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및 출력을 하면서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단계로서 일상적인 세무업무인 갑근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및 세무조정업무를 숙지하도록 하는 과정

③ 기업회계실무해설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해설하는 단계로서 지금까지 입문과정과 실무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종합 과정

두풍회계학원
(0562) 274-5949, 282-6691

동일기업 ● 4F 본 학원 ● 배도육교
노트프리지 ● 백암점 ● 동외교

匠人精神으로 도장기술을 선도합니다!!

저희 도장회사는 설비 및 기계장치 전문 도장업체로서 다년간 쌓은 기술축적과 Know-How로 귀사의 도장을 최상의 품질로 책임집니다. 또한 도장기술인의 실명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적용하여 시공품질을 보증합니다.

장비보유 현황

- 각종도장 (금속도장, 내화도장, 콘크리트 도장 등)
- 최신 도장기기 및 각종 도장 장비 보유
- 고소 작업대 및 고압살수 세정기 보유
- 도장품질 측정을 위한 각종 계측기 보유

株式會社 東佑實業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65-1
■ 전화: (0562) 286-4236~7, 285-1306, FAX(0562) 286-4239